2018. 9. 4. (화) 언론보도

경인방송

2018-09-03 00:00

경기관광공사, 다음달 'DMZ 세계시민 나눔캠프' 개최...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서 열려

[홍성민 기자]

경기관광공사는 10월 5일~7일, 10월 12일~14일 2회에 걸쳐 DMZ 세계시민 나눔캠프를 연다.<사진=경기관광공사 제공>

[경인방송=홍성민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다음달 5일~7일, 12일~14일 두 번에 걸쳐 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에서 'DMZ 세계시민 나눔캠프'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네이처포스트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DMZ 가치와 생태, 관광자원 홍보와 함께 세계 분쟁지역의 난민 아동 인권 등에 대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각 회차당 150팀, 약 600여 명이 참여 가능하며 'DMZ+평화+나눔'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부대 프로그램이 진해됩니다.

이번 세계시민 나눔캠프는 오는 5일부터 온라인 소셜커머스 티몬(www.ticketmonster.c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참가비 전액은 월드비전의 분쟁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사업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hsm@ifm.kr

경인일보

2018년 9월 4일 화요일 017면 문화

민통선옆 공감의 장… 다음달 '세계시민 나눔 캠프'

5~7일·12~14일 임진각평화누리공원

민속공연·골든벨·생태탐방 행사도

'나눔'을 통해 DMZ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캠핑이 열린다. 경기관광공사는 다음 달 5~7일, 12~14일 총 2회에 걸쳐 임진각평화누리 캠프장에서 'DMZ 세계시민 나눔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DMZ의 가치와 생태, 관광자원 홍보와 함께 세계 분쟁지역의 난민 아동 인권 등에 대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와 함께 세계 난민 아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DMZ+평화+나눔', '세계가 하나 되는 DMZ'를 주제로 진행하는 캠프는 다양한 체험과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화 상영, 게임을 통해 분쟁지역 알아보기, VR 난민촌 가상현실 체험, 난민이 되어 탈출상황 소지품 담기 등을 준비했다.

또한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배우 이광기와 함께하는 'DMZ 세계시민 나눔체험 골든벨'과 아프리카 민속공연도 펼쳐진다. 이밖에도 DMZ 생태체험, 생태탐방로 걷기 행사, 캠프 그리브스 버스투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캠핑을 통해 민통선과 인접한 캠핑장에서 DMZ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세계 난민 아동이 처한 어려운 환경에 대해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5일부터 온라인 소셜커머스 티몬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참가비 전액은 월드비전의 분쟁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